

# 2008년 원유 도입단가 97달러

무역협회, 42.4% 상승에 9억배럴 수입 ... 2008년 초 중동산 장기계약

국내에 도입되는 원유의 2008년 평균 단가가 배럴당 97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의 동향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고유가 영향으로 2008년 원유 도입단가가 전년대비 42.4% 오른 97달러에 달하고 물량은 9억배럴을 수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국내 도입 원유량의 80%를 차지하는 중동산의 가격이 2008년 초에 그리 높지 않았던 데다 원유에 대한 장기 계약이 급격한 상승 요인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의 원유 도입 평균 단가는 2005년 배럴당 48.8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6년 61.1달러, 2007년 68.1달러로 매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유가 폭등세에서도 2008년 국내 원유도입 물량은 2007년보다 늘어나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원유 도입 물량은 9억배럴로 2007년 8억7300만배럴보다 3.1%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05년에는 8억4300만배럴, 2006년에는 8억8900만배럴을 기록했다.

무역협회는 “신흥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 미국 석유 채고 감소,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지정학적 불안 및 심리적 요인, 투기자금의 원유시장 유입 등으로 유가가 급등했으며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02>